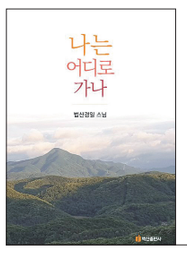
시로 엮은 '금강경' 수행의 고갱이



나는 어디로 가나
법산경일 스님 지음
백산출판사 / 2만원

법산 스님, 8년 만의 두 번째 시집
시 120여 편과 직접 찍은 사진 담아
〈금강경〉 10만독 수행…'비움의 철학'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5월 14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시집을 소개하는 법산 스님.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무엇인가 / 하얀 눈 덮인다고 큰 산이 가려지나 / 검은 구름 걷히는 날 옛 거울 빛나리라."

–시 '나는 어디로 가나' 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금강경〉 10만독(讀) 수행을 해오며 얻은 깨달음과 자연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를 출간했다. 지난 2017년 첫 시집 〈나는 누구인가?〉를 펴낸 지 8년 만이다.

5월 14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법산 스님은 첫 번째 시집에 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백장암에서 안거할 때, 포행하다 문득 제 그림자를 사진으로 찍어 봤어요. 그림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런 너는 누구냐'는 되물음이 생기더군요. 그 물음에 답하며 쓴 시로 등단하고 시집을 냈어요. 그 이후로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두었던 시와 제가 찍은 사진을 담아 두 번째 시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에 실린 시는 주로 함양 남산사 고경선원과 양산 통도사에서 쓴 것들이다. 아침 공양길에 만난 새 한 마리와 연잎에 내려앉는 벌, 활짝 핀 꽃봉오리와 때가 되어 떨어진 도토리들…. 자연이 내보이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시와 사진에 담은 법산 스님은 "자연은 본래 공적(空寂)하여 / 만물을 늘 새롭게 하며 / 심성은 깊이를 알 수 없으니 / 모든 생명을 즐겁게 할 수 있다네"라고 노래한다.(시 '적정의 자성' 중에서)

자연과 함께 스님의 시를 관통하는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2001년에 〈금강경〉 10만독을 서원했다. 선방에 방부를 들였을 때도 8시간 정진 후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은 지금까지 7만6400독을 성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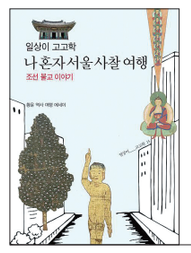
"날마다 금강반야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고 푸른 산을 보면서 산색에 물든다"는 스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 마디로 '비움'"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찰나도 머물지 않는 시간 / 순간도 멈추지 않는 변화 / 무엇을 탐착하랴 / 오직 형상 없는 그 마음 / 오직 걸림 없는 청정심 / 변함없는 내 자성"을 노래한다.(시 '순간의 소유' 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이기도 한 스님은 "'대종사'라 하면 다 타버린 재처럼, 탐진치를 모두 여의고 맑고 향기로운 얼굴이 되어야 한다"며 "최근 포교와 전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스님들이 수행을 올곧이 한다면 진리의 법등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당부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저자 **법산 스님**은?

15세에 남해 화방사로 출가해 덕산화상을 은사로 염불과 교학을 수학하고, 통도사 극락암 경봉 대선사를 법사로 입실건당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수한 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201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정각원장,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인도철학회장, 정토학회장 소임을 맡았고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동산반야회 법주, 조계종 법계위원장, 영축총림 통도사 선덕으로 수행하고 있다.

서울 사찰에서 찾은 조선 불교 이야기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 2만4800원

역사 여행 에세이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를 선보여 온 황윤 작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사찰 순례에 나섰다. 원각사와 흥천사, 봉은사 등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에서 숭유억불의 시대를 견딘 조선 불교의 현실과 생명력을 읽어내는 여정이다.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은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출발해, 보신각에서 300여 년간 나라의 시간을 알렸던 종이 원래 있었던 원각사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각사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탑골공원에서는 세조의 각별한 불교 사랑과 애달픈 폐사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 흥천사와 봉은사, 승가사, 옥천암, 호국지장사, 달마사, 조계사 등을 순례하며 조선 불교의 면면을 살핀다.

전작 〈나 혼자 경주 여행〉과 〈나 혼자 백제 여행〉에서 '탑'으로, 〈나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으로 불교 이야기를 펼쳤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불화와 불상'에 주목한다. 조선 전기 불화인 '석가탄생도(일본 후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 현대불교 자료사진

호카 혼가쿠지 소장)'와 '석가출가도(독일 퀼른동아시아미술관 소장)'를 비교 감상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팔상도(18세기)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와 불화·불상 보는 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사찰에 관심이 많아도 아직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찰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이 책을 통해 서울 사찰들의 역사와 조선 시대 불상·불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빛나는 도시 서울에 자리한 고찰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며 "이 책을 통해 선악과 호오(好惡)를 가르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고락(苦樂)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서울 사찰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불법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성진 스님의 40가지 '인생 방편'



절 마당에 앉아
성진 스님 지음
김영사 / 1만7800원

절 마당에서 나눈 고민과 답변 모아
"모두에게 '나다움'의 봄꽃이 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성진 스님이 행복한 삶을 위한 마흔 가지 '인생 방편'을 소개하는 책 〈절 마당에 앉아〉를 펴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절 마당'은 스님이 머무는 남양주 성관사의 마당이다. 이곳은 저마다의 질문과 고민을 안은 이들로 늘 북적인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요?" "남과 비교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절 마당에서 스님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질문에는 함께 길을 찾으며 마음을 나눴다. 그렇게 오고 간 대화들을 씨앗 삼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성진 스님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괴롭다"는 사람에게 '화'라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워킹맘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하는 길이 곧 옳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라"고 당부한다. 각 장 사이에는 마음에 새겨둘 경전 구절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사랑할 때,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부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절 마당에 앉아〉는 결국 '나답게' 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요하게 건너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하고 세상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진 스님은 말한다.

"짧은 인생에 주저할 겨를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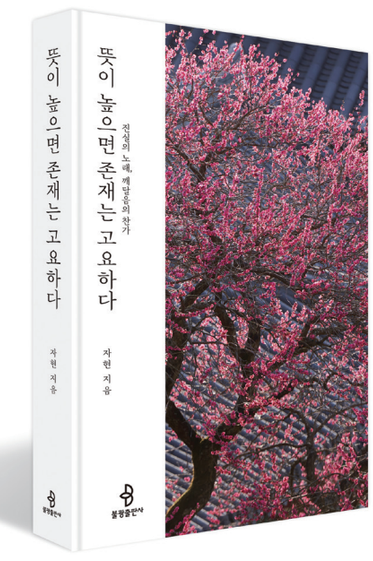
이 우주, 모든 존재를 위한 진실의 노래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담은 깨달음의 찬가

다시 한 번, 진정한 자유를 향해!

성聖과 속俗을 오가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감각적인 사유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자현 스님의 두 번째 감성 법문

한 수행자의 진지한 자기 고백은 돌아서면
잊게 되는 멋들어진 힐링의 문장이 아니다.
대신 단단한 바위와 같은
강직한 지혜와 용기의 말이다.
그로써 험한 세상의 풍파에 멈춰선
우리를 다시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 부여된 소임이다.

자현 지음 | 248쪽 | 양장본(올컬러) | 18,000원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신화 속 붓다가 들려주는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

괴로움과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완벽한 삶의 지혜

붓다의 신화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고통의 순간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순간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천신과 마왕,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중심을 다잡았던 영웅 붓다.
신화가 된 붓다의 예리한 통찰이
마침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 준다.

동명 지음 | 304쪽 | 20,000원

불교 기도문
매 순간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
304쪽 | 17,000원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까지
모든 날을 위한 생활 불교 기도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